

지금 이 순간, 뮤지컬!

뮤린이를 위한 대극장 뮤지컬 길라잡이

조원형 BBS 불교방송 Radio편성부 사원



나의 대기순서

19485

현재 접속 인원이 많아 대기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약하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새로고침 하거나 재접속 하시면
대기순서가 초기화되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예매 참여 전인 후 20분 내에 좌석 선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예매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한 티켓팅

“며칠 전에 오유 막공 티켓팅 하러 들어갔는데 한 번 이선좌 맞고 다시 들어가니까 포도알이 하나도 없지 뭐야. 결국 취켓으로 겨우 한 자리 구했어. 그래도 오글이 있으니까 멀리서라도 조유령은 보려고...ㅠㅠ”

막공, 이선좌, 포도알, 취켓, 오글... 이게 한국어가 맞나 싶은 이상한 단어들, 한 번에 이해하셨나요? 위 문장을 막힘없이 바로 해석할 수 있다면-당신은 뮤덕(뮤지컬 덕후, 뮤지컬 애호가)입니다!

그렇다면, 위 문장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며칠 전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마지막 공연 표를 사러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란 창이 뜨고 오류가 나서 다시 접속하니까 VIP석이 다 나가고 하나도 없지 뭐야. 결국 다시 취소표 나온 길로 겨우 한 자리 구했어. 그래도 오페라 글라스(쌍안경)가 있으니까 멀리서라도 조승우 배우가 연기하는 ‘유령’은 보려고.”



흔한 뮤덕의 책장, 알록달록 프로그램 북들로 가득합니다

뮤지컬 관람.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분야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엔 아주 익숙하고 즐겨 하는 취미 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뮤지컬이란 장르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 또는 뮤지컬에 입문은 했는데 아직 못 본 작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내 주요 뮤지컬 제작사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 대극장에 올라왔던 작품들과 앞으로 다가올 연말 관객들에게 선보일 작품들을 가볍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2 <웃는 남자> 세종 LED 홍보

EMK 뮤지컬 컴퍼니

이름 그대로 European Musicals In Korea, 유럽 뮤지컬을 한국에 가져와 소개하는 회사입니다. 유명한 라이선스 작품으로 <레베카>, <엘리자벳>, <모차르트> 등이 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직접 창작 뮤지컬 제작에도 나서 힘쓰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작품으로 <마타 하리>, <웃는 남자>, <베토벤> 등이 있습니다.

올해 EMK는 아주 바빴는데요, 1월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시크릿>의 초연을 시작으로, 이어서 4월엔 이를 조금 수정해 <베토벤: 시크릿 시즌2>로 공연했습니다. 6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EMK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모차르트>의 일곱 번째 시즌이 무대에 올랐고, 가을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레베카>의 칠연, 그리고 제작사를 옮긴 후 EMK에선 처음 선보이는 <벤허>의 삼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럽 뮤지컬을 국내에 소개하는 회사답게, EMK의 극을 떠올리면 화려한 무대와 고풍스러운 의상, 클래식한 넘버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베토벤>은 EMK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창작 뮤지컬이었고, EMK의 <웃는 남자>를 아주 좋아하는 터라 <베토벤> 역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극의 스토리 전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불멸의 거장 악성 베토벤의 음악을 샘플링해 만든 뮤지컬 넘버들이 참 아름다웠고, 배우들의 혼을 담은 열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2023 <베토벤> 초연 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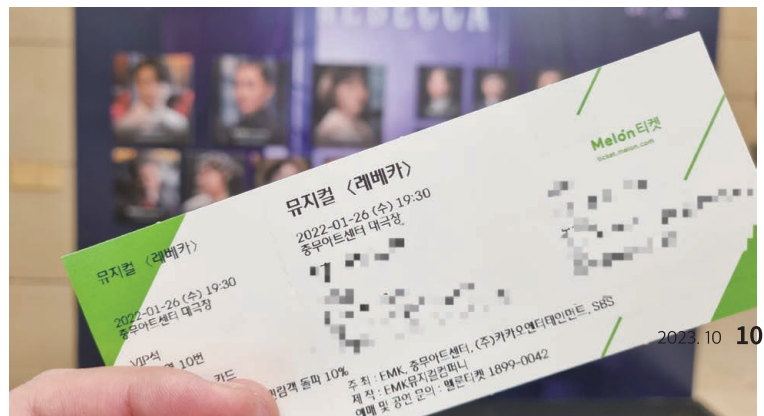
2023 <베토벤> 초연 캐스트

지금 공연 중인 작품 중에선 <레베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틀어 올린 머리를 한 댄버스역의 배우가 어두운 의상을 입고 나와 ‘레베카~ 지금 어디에~’를 외치는 유명한 곡 외에도,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넘버들이 많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소위 마라 맛 스토리까지! 한국 관객들의 취향을 저격한, 대중적인 작품 중 하나라 뮤지컬에 입문하신 분이라면 한번쯤 관람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2021-2022 <레베카> 육연 충무아트센터 전경



2021-2022 <레베카> 육연 티켓 인증



OD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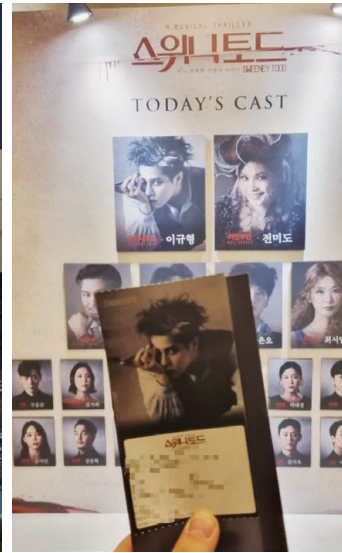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킬 앤 하이드>, 강렬한 스토리와 비주얼로 압도하는 <스위니 토드>, 셰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극화한 <맨 오브 라만차> 등 다수의 유명 작품들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3월까지 <스위니 토드>를, 4월부터 6월까지 <데스노트>의 삼연앵콜 공연을 했는데요, 특히 <데스노트>가 지난해에 이어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서울 및 부산공연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정말 역대급 피케팅(=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스위니토드>에선 거장 손드하임이 써 내려간 음울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날 수 있고요, <데스노트>에선 화려한 LED 무대 효과가 기억에 특히 남았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조금 어색하거나 유치하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뮤지컬 <데스노트>는 관객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잘 각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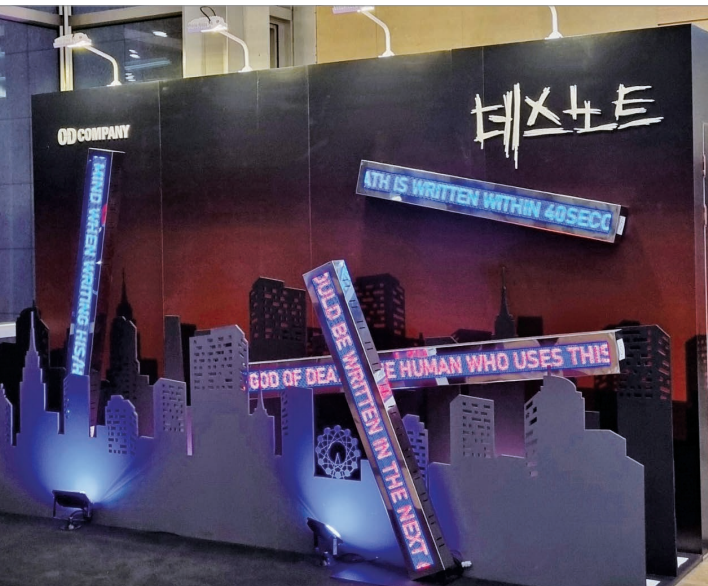


2023 <스위니토드> 사롯데 전경



2023 <스위니토드> 티켓 인증

고, 이에 다채로운 무대 효과를 더해 관객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OD의 작품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배우는 류정한, 조승우, 홍광호인데요, 이 배우를 사랑하시는 팬이라면 OD컴퍼니의 작품들! 결코 지나치실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4년은 <지킬 앤 하이드>의 공연 20주년인데요, 조승우 배우가 또 한 번 조지킬로 우리 곁을 찾아올지,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2022 <데스노트> 포토존



2022 <데스노트> 캐보

S&Co. (에스앤코)

앞서 소개한 EMK가 유럽 뮤지컬을 많이 소개한다면, 에스앤코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주로 소개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 <위키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을 라이선스 제작하거나,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으로 들여와 선보이는 회사죠.

에스앤코는 올해는 13년 만에 찾아온 <오페라의 유령> 삼연으로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 3월 부산에서의 개막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공연을 마치고 지난 7월 말부터는 서울에서 다시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3일이면 국내 누적 공연 횟수 1천 5백 회를 달성한다는데요, 일단 <오페라의 유령> 자체가 브로드웨이에서도 최장기간 공연한 작품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1 <하데스타운> 초연 포토존



2021 <하데스타운> 초연 오프닝워크 스페셜 티켓



2023 <지크슈> 플랑



2023 <지크슈> 캐보

지금 공연 중인 작품 외에도, 내년에 찾아올 에스앤코의 두 작품이 제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2022년 성황리에 라이선스 초연을 마쳤던 <하데스타운>의 두 번째 시즌과 그리고 국내엔 아직 소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토니상 뮤지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디어 에반 헨슨>이 바로 두 주인공입니다. <하데스타운>의 경우엔 제 '인생극'이라고 할 정도로 애정하는 작품이어서 새로운 배우들이 만들어 갈 새 시즌이 많이 기대되고요, <디어 에반 헨슨>은 아직 국내엔 소개되지 않았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은 데다가 이미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넘버가 있어서 기대가 큼니다. 에스앤코가 선보일 내년의 무대들, 함께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빌리 엘리어트>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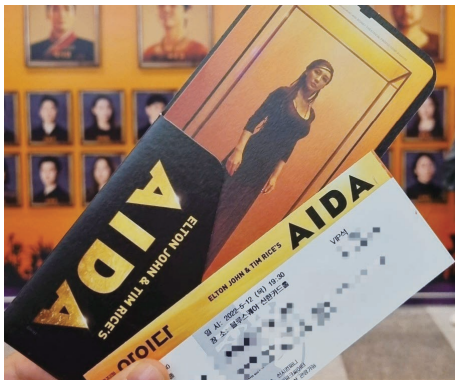
2021 <시카고> 포토존

신시컴퍼니

마지막으로 소개할 회사는 신시컴퍼니로, 대표작으로는 <시카고>, <맘마미아>, <아이다>, <빌리 엘리어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라이선스와 내한을 번갈아 가며 거의 매해 한국에서 공연 중인 신시컴퍼니의 대표작인데요, 자주 오는데도 늘 인기가 많은 공연입니다. <맘마미아> 역시 2004년 초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신시컴퍼니 공연 중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은 <아이다>인데요, 디즈니의 원작을 바탕으로 2005년에 한국 초연이 이뤄졌고,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프로덕션 버전으로 꾸준히 사랑받았으나 해당 버전 종료로 확정되면서 2019년 오연을 '그랜드 파이널'로 이름 붙여 올렸죠.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대로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지난 2022년 '진짜 마지막'인 육연을 올렸고 누적 관



2022 <아이다> 티켓 인증



2022 <아이다> 포토존



2020 <렌트> 캐보



2022 <렌트> 커튼콜데이

객 100만 명(925회 공연 기준)을 돌파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새로운 <아이다>가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보고 온 분들 말에 따르면 다음 시즌에 만나게 될 아이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시컴퍼니 작품 중엔 올 연말 다시 찾아오는 <렌트>가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의 20주년 공연 이후 꼭 3년 만에 다시 관객과 만나게 되는 건데요, 공개된 캐스트 속에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더라고요. 52만 6천6백 분의 귀한 시간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작품, 연말에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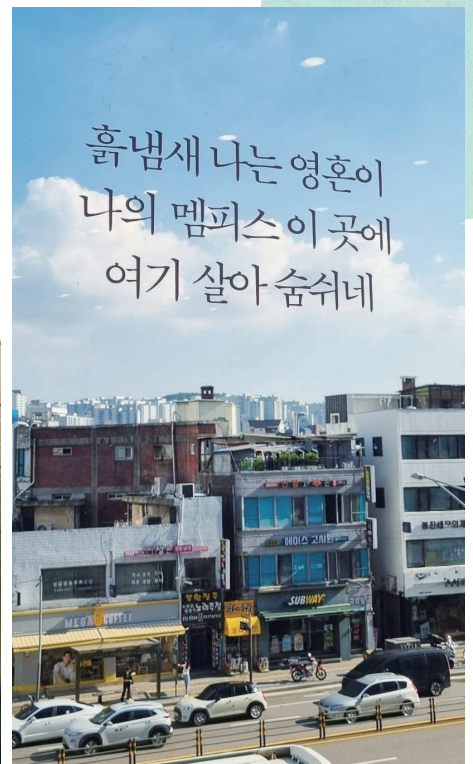
이렇게 지금까지 4개의 뮤지컬 컴퍼니와 그의 대표작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티켓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좌석을 구하기도 예전보다 어려워져서, 어떠한 측면에선 ‘가성비’ 있는 취미 생활은 아닐지도 모르겠단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도 배우들과 수많은 공연 관계자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예술’인 뮤지컬은, 몇 마디 말로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고 아름답죠. 그래서 저처럼 많은 사람이 ‘뮤덕’을 자처하고, 피켓팅을 뚫고 좋아하는 공연의 표를 구하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서도 공연장을 찾아 N차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면 관계상 오늘은 몇몇 작품과 컴퍼니에 대해서만 소개했지만, 제가 소개한 작품과 컴퍼니가 뮤지컬의 전부는 절대!! 아니고요, 소개하지 못한 좋은 작품들과 멋진 컴퍼니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관객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올가을엔, 사랑하는 이들과 손을 잡고 뮤지컬 공연장을 한 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Musical



2023 <멤피스> 오프닝데이 선물



2023 <멤피스> 넘버(창문 스티커)